

오피니언

光日春秋

이상규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은 무엇일까? 얼마 전 주강현 박사가 쓴 '돌살'이라는 책의 서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삶을 향한 인류의 꿈은 유효 기간이 없다"라는 구절이 잊혀지지 않는다.

저력을 뛰어넘어 결혼했지만 요사이 결혼 대상의 또래 집단은 거의 결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모 대학 입학생 50%의 학부모가 직업이 한국사회 0.5% 내에 들어가는

행복하려면 기부하라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 따뜻하게 정을 나누며 살아왔던 지난 농경사회에서는 노동을 함께하는 두레 농업이나 바다 속 돌담을 이용한 돌살 어업을 하며 마을 단위의 공동체 삶을 영위하였다. 함께 일하면서 더불어 기뻐하고 슬퍼하는 원시적 삶의 모습이 자본사회에 들어서는 동경의 대상으로, 아니 꿈의 대상이 되었다.

최상위 집단이라는 통계가 바로 이러한 점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누구나 동등하다고 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은 수 있다는 사려들은 여기저기에서 찾을 수 있다. 부유한 사람은 학력(學歷)이 자연스레 높을 수밖에 없고 학력이 높은 사람은 잘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 구조와 환경이 세습되어 고착된다면 결국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차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세습이 여러 대(代)에 걸쳐면 인간 태생의 경제적, 지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가 고정화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그렇다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평등하다"는 말은 허공에 뜬 이야기가 될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종교와 종족이 복잡하게 뒤섞여 사는 대표적인 자본주의 나라인 미국, 역시 빈부의 격차가 심하며 빈부격차에 따른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다. 그렇지만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손꼽으려면 청교도적 나눔 문화의 정착을 들 수 있다.

로 정하고 나눔의 문화 행정을 펼친다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나눔과 기부 문화는 이 사회에 정착시키는 일은 더불어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상적인 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이 꿈은 결코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된 선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하다. 나눔과 기부문화가 이 사회의 미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남보다 더 가진 사람들, 남보다 더 배운 사람들이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미 선진 사회의 사례를 보면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기부문화가 보편화되어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뜨거운 이웃 사랑, 계층과 인종을 뛰어넘어 하나 되는 꿈, 이제 우리가 실현해야 할 삶의 덕목이다.

미국으로서는 아프리카나 제삼세계 지구촌 가족과 가족단위의 결연도 늘어나고 있고 국제구호기구인 월드비전과 같은 단체가 국제사회 봉사과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나눔의 문화 운동이 시민운동으로 승화되기를 기원해 본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상처'와 교훈 남긴 '김병준 인사 파문'

김병준 교육부총리 '인사 파문'은 정부 인사시스템과 정치권 및 교육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논문 표절 의혹에서 비롯된 이번 파문은 '자진 사퇴'로 결론 났지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김 부총리를 재검토했지만 그마저도 알맹이가 없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우선 참여정부 인사시스템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에서조차 반대 여론이 높았는데 불구하고 '코드 인사'라는 비난까지 받으면서 김병준 교육부총리 카드를 끝내 관철시켰다. 특유의 '밑어붙이기'로 국민여론이나 민심의 흐름과는 엇갈린 선택을 한 것이다.

당사자인 김 부총리의 상황 인식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 부총리가 상황을 제대로 판단했다면 여론이 이처럼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 부총리는 온갖 의혹을 '관행'이나 '실무자의 실수' 등으로 변명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통과외례에 불과했다는 의견도 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 인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걸려져 파문이 커져갔던 게 사실이다. 특유의 '밑어붙이기'로 국민여론이나 민심의 흐름과는 엇갈린 선택을 한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다. 청와대는 교원단체 및 사회단체, 경제단체 등이 출신인 김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사퇴할만 한 사안은 아니다"며 감싸안기로 일관했다. 여론은 이미 등을 돌렸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만 모른 채 한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통과외례에 불과했다는 의견도 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 인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걸려져 파문이 커져갔던 게 사실이다. 특유의 '밑어붙이기'로 국민여론이나 민심의 흐름과는 엇갈린 선택을 한 것이다.

이번 '김병준 파문'은 여론을 무시한 인사는 소모적 논쟁을 불러오고 결국 정권 차원의 부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 주고 있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다시는 이같은 우(愚)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효선 광명시장 자치단체장 자질 있다

'전라도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효선 경기도 광명시장이 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이 시장은 최근 김 일태 영암군수에게 전화를 걸어 영암군과의 자매결연 파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한다.

으나 일부는 지리적 여건과 경제 생산 현황 등을 고려치 않고 추진해 형식적인 교류에 그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자치단체장 협약을 통해 14년동안 지속해온 행사를 전파 한 통화로 파기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결연을 파기해야 할 사정이 발생했다면 먼저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그런 행정절차까지 무시한 시장이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영암군과 광명시의 자매결연은 지난 1992년 결연 이후 비교적 활발한 편이었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는 광명시 공무원과 시민들이 폭설 피해를 입은 영암을 찾아와 복구활동을 벌이지 않았는가.

자치단체장 협약을 통해 14년동안 지속해온 행사를 전파 한 통화로 파기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결연을 파기해야 할 사정이 발생했다면 먼저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그런 행정절차까지 무시한 시장이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장은 보다 솔직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발언으로 소속 정당에서 탈당 권유까지 받았으나 호남 사람들이 원망스러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광명시의 회가 고충연구회와의 자매결연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배경에 이 시장과의 '사전교감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 연장선일 수 있다.

자치단체장 협약을 통해 14년동안 지속해온 행사를 전파 한 통화로 파기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결연을 파기해야 할 사정이 발생했다면 먼저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그런 행정절차까지 무시한 시장이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때마침 한나라당이 '이상한 건배사'를 하고 영암군과의 자매결연을 파기한 행위를 문제삼아 이 시장에 대해 추가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내릴 징계 수위가 주목된다.

無等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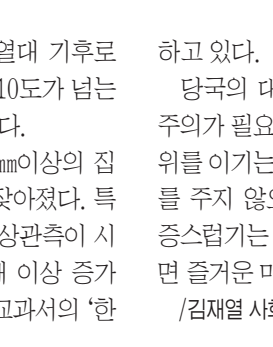
장마 뒤 끝이 짙은 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라는 인사가 통할 만큼 폭염에 열대야까지 기세가 심상치 않다. 더위 탈출과 숙면을 위한 갖가지 모책이 동원되면서 신 풍속도가 형성되고 있다. 올빼미 산행 족들이 늘고 증심사와 무등산장 계곡 인근 식당에는 밤늦게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는 한 여름 특수(特需)를 누리 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 10도 이상인 기간이 9개월 이상이면 아열대 기후로 본다. 한국은 몇 년 전부터 10도가 넘는 달이 7~8개월에 이르고 있다. 아열대 기후 상징인 100mm 이상의 집중호우(스콜)와 열대야도 찾아졌다. 특히 열대야는 한반도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1910년대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 교과서의 '한

'폭염 탈출'

장마 뒤 끝이 짙은 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라는 인사가 통할 만큼 폭염에 열대야까지 기세가 심상치 않다. 더위 탈출과 숙면을 위한 갖가지 모책이 동원되면서 신 풍속도가 형성되고 있다. 올빼미 산행 족들이 늘고 증심사와 무등산장 계곡 인근 식당에는 밤늦게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는 한 여름 특수(特需)를 누리 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 10도 이상인 기간이 9개월 이상이면 아열대 기후로 본다. 한국은 몇 년 전부터 10도가 넘는 달이 7~8개월에 이르고 있다. 아열대 기후 상징인 100mm 이상의 집중호우(스콜)와 열대야도 찾아졌다. 특히 열대야는 한반도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1910년대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 교과서의 '한



장마 뒤 끝이 짙은 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라는 인사가 통할 만큼 폭염에 열대야까지 기세가 심상치 않다. 더위 탈출과 숙면을 위한 갖가지 모책이 동원되면서 신 풍속도가 형성되고 있다. 올빼미 산행 족들이 늘고 증심사와 무등산장 계곡 인근 식당에는 밤늦게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는 한 여름 특수(特需)를 누리 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 10도 이상인 기간이 9개월 이상이면 아열대 기후로 본다. 한국은 몇 년 전부터 10도가 넘는 달이 7~8개월에 이르고 있다. 아열대 기후 상징인 100mm 이상의 집중호우(스콜)와 열대야도 찾아졌다. 특히 열대야는 한반도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1910년대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 교과서의 '한

기고



최종환

공익근무요원을 보는 사회의 시각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다.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첫째,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과 달리 집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현역병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둘째, 일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규율 위반행위나 민원인과의 마찰사태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 중 범죄에 연루된 공익근무요원은 동일 연령대 사회 일반범죄 발생률 6.0%에 비해 현저히 낮은 2.0%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수 공익근무요원의 잘못을 가지고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전체 공익근무요원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다. 이제 공익근무요원을 사랑으로 감싸고 격려하여야 하며, 복무기관에서도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 자식 또는 내 동생과 같이 따뜻한 배려와 지도가 있어야 한다.

기고



박경국

현대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구 고령화 및 빈부 격차다. 단순히 정부 예산을 늘리고, 사회 제도 개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사명을 갖고 활동하는 단체가 바로 봉사단체이다.

사랑의 싹터는 찾는 노인들 모두 식사를 해결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은 아닌 듯 했다. 그렇다면 이 곳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노인들은 이 곳에서 비슷한 연배의 동료들을 만나 식사를 하며 집단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손주·손녀뻘되는 봉사자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 들려주고 싶은 말들이 많겠는가. 독거노인들에게는 관심과 배려로 비취질 수 있다.

공익요원도 사랑으로 감싸야

취졌을 수도 있고 넷째, 일부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이나 복무를 소홀히 하여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소수 공익근무요원의 잘못을 가지고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전체 공익근무요원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다.

이들 중 범죄에 연루된 공익근무요원은 동일 연령대 사회 일반범죄 발생률 6.0%에 비해 현저히 낮은 2.0%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수 공익근무요원의 잘못을 가지고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전체 공익근무요원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다.

하지만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시선들은 공익근무요원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더 큰 것 같다. 사회 일부에서는 병역의무이행은 곧 현역병으로 복무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시키는 선입감을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수행하고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는 일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제 공익근무요원을 사랑으로 감싸고 격려하여야 하며, 복무기관에서도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 자식 또는 내 동생과 같이 따뜻한 배려와 지도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 인식전환이 이루어 질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공익근무요원 모두는 병역의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를 이롭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훈훈한 노인 급식 봉사 활성화

사람의 싹터는 독거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기독교 단체다. 단순히 이 단체가 하는 일만 가지고서는 노인들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이 그다지 대단치 않게 느껴질 수 있다. 나 역시 이 시설을 방문하기 전에 비슷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 노인들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보다 돈을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같은 활동은 독거노인들의 생계보조금을 늘리는 정책보다 실질적이고 중요한 것 같다. 이 단체들의 활동이 청소년들의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지역민들의 의식을 변화 시키는데 큰 몫을 한다.

이들 중 범죄에 연루된 공익근무요원은 동일 연령대 사회 일반범죄 발생률 6.0%에 비해 현저히 낮은 2.0%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수 공익근무요원의 잘못을 가지고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전체 공익근무요원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다.

정부의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봉사 활동이 조금이나마 더 활성화 되어야만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한 층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공익근무요원을 사랑으로 감싸고 격려하여야 하며, 복무기관에서도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 자식 또는 내 동생과 같이 따뜻한 배려와 지도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 인식전환이 이루어 질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공익근무요원 모두는 병역의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를 이롭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봉사 활동이 조금이나마 더 활성화 되어야만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한 층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공익근무요원을 사랑으로 감싸고 격려하여야 하며, 복무기관에서도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 자식 또는 내 동생과 같이 따뜻한 배려와 지도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 인식전환이 이루어 질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공익근무요원 모두는 병역의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를 이롭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봉사 활동이 조금이나마 더 활성화 되어야만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한 층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익일적인 정수기 필터 교체 기준 식수 오염 부른다

정수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각종 세균과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는 '필터'교체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들 중 범죄에 연루된 공익근무요원은 동일 연령대 사회 일반범죄 발생률 6.0%에 비해 현저히 낮은 2.0%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수 공익근무요원의 잘못을 가지고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전체 공익근무요원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다.

정수기 회사에 연락해봤더니 '4인 가족이 물을 가장 많이 사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교

체 시기를 정한다고 한다. 가정마다 다른 사용량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책정한다는 것이다.

정수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각종 세균과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는 '필터'교체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정수기 회사에 연락해봤더니 '4인 가족이 물을 가장 많이 사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교

정수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각종 세균과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는 '필터'교체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정수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각종 세균과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는 '필터'교체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phone numbers, fax, and website details.